



인터뷰 = 외국인 근로자 공동체 대표 ①

스리랑카 대표 자나카

“노동자보다는 사람으로 대해 주세요”

700여명 스리랑카 共同體 통역·민원 解決士

포천시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1만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자국의 공동체 대표를 중심으로 서로 이해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본지는 이들 공동체 대표를 만나 애로사항과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정부와 포천시, 시민들이 어떻게 이들을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역사의 기록으로 삼고자 한다.

(편집자주)

스리랑카에서 온 자나카(36)는 2002년에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와 양주의 한 섬유업체에서 3년 동안 3천만원을 벌어들여 귀국했다가 2006년도에 다시 들어와 현재는 포천 나눔의 집에서 공동체조직 관련 실무자로서 일하고 있다.

포천시 선단동에서 보증금 500만원 월세 15만원에 살고 있는 자나카는 콜롬보에서 불교와 역사, 스리랑카어 등을 전공하여 대학을 졸업했다.

자나카는 한국에 오기 전에 대학에서 한국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했다. 2002년 양주시 깃바위 한 섬유회사에 취직한 자나카는 월 120만원을 벌

었다. 이 돈은 스리랑카에서 슈퍼를 1년 동안 운영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이다. 3년 동안 3천만원을 모아 형제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아직 미혼인 자나카는 결혼을 하게 되면 형제들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혼을 못했다고 한다.

현재 자나카가 하는 일은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등에서 일하고 있는 스리랑카에서 온 근로자 700여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다.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몸이 다쳤을 때 병원에서 통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나카는 즉시 달려간다. 그리고 회사에서 말이 통하지 않아 고통을 당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전화로 통역을 도와주기도 한다.

자나카가 이처럼 한국어를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매주 원불교에 나가 열심히 한국어를 배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나카가 처음 한국에서 와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하루 12시간 노동에 해야 한다는 점이다. 스리랑카에서는 이렇게 일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웠던 일은 첫 번째 월급을 받을 때였다며 스리랑카에서 1년 동안

벌어야 할 돈을 1개월만에 벌었던 것이 너무 좋았다고 한다.

문화적 차이에 대해 자나카는 추운 날씨에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러나 처음 보는 눈이 너무 아름다웠다고도 한다. 이제는 적응이 돼 추운 날씨가 낯설지는 않다고 한다.

자나카는 한국정부에 바라는 사항에 대해 비자가 없는 외국인들에 대해 단속기간을 정해 단속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국 동포들을 대할 때마다 너무 힘들다고 밝혔다.

고용주인 사업주에게 바라는 것은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사업주의 지시를 잘 이해하지 못해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사업주의 지시를 무시하는 것으로 잘 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말이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포천 나눔의 집에 연락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월급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회사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서 최선을 다해 근무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열심히 노

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한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 등에 참여하여 한국생활에 잘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나카는 포천시민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하나의 시민으로 대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포천에서 일하고 있는 1만여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단순히 노동자로서만 여기지 말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올해 포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 축제 프로그램은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바라며 축제가 개최되는 시기만큼은 단속하지 않고 편안하게 즐기고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포천신문에 바라고 싶은 것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 한국사람들에게 이주노동자들의 문화를 소개하는 거리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러한 축제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기도 했다. 자나카는 외국인 근로자로 이곳에 온 사람들이 사람으로 대접받기를 원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인터뷰 포천시 시설채소연합회 제2대 회장 원성숙

“시설채소 특화농산물로 指定해 달라”

농업인단체·작목별 연구회와 농업발전에 노력

“포천시 시설채소연합회 임원과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항상 수렴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 아래서 회원의 권익을 위해 새로 구성된 임원과 열심히 노력하였으며 유관기관과 농업인단체 각 작목별 연구회와 협조하여 포천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월30일 제2대 포천시 시설채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한 원성숙(58·사진) 회장이 밝힌 연합회 운영에 대한 포부다.

이날 취임식에서 원 회장은 “연합회가 발족한지 벌써 3년이 되었으며 짧은 기간에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신 전임 임원들과 조직발전에 많은 힘을 쏟아오신 유능한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년동안 하우스 자재인 비닐공통구매 사업과 체육행사 등을 통해 회원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폐비닐 수거 사업을 추진해 농업 환경을 깨끗이 하고자 노력함으로써 포천사회에서 인정받는 단체로 성장했다고 생



각하며 2006년1월11일 폭설로 피해를 입은 전북 정읍시 추산마을을 방문해 실의에 빠진 정읍의 시설포도 농가의 복구작업을 지원하여 2천400평 대형하우스 10동 철거작업을 같이 한 80여명의 회원과 회원과 함께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의 도움으로 시설채소 연합 마케팅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

라고 밝혔다.

226명으로 구성된 연합회는 158만여명에 시금치, 열무, 알갈이, 상추, 참나물, 쪽파, 아욱, 숙갓 등의 시설채소를 생산해 연간 300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다.

원 회장은 앞으로는 농산물력추적제(GAP)가 유통시장에서 철저히 시행될 것으로 보여 31명으로 연합시금치작목반을 구성해 농산물력추적제 인증을 받아 출하할 계획이다.

아울러 포도, 인삼, 사과, 버섯과 같이 특화품목으로 시설채소 또한 특화 농산물로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회에서는 특화 농산물로 인정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회장은 내촌면 읍면리 출신이며 현재 소흘읍에서 6천여평의 부지에 시금치, 숙갓, 알갈이, 아욱 등을 재배하여 연간 1억3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시설채소농업인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시인의 窓 강변 아침

안개 속 수풀 헤치고 강가로 나아갔지
창백한 손에 가득 떠올린 아침은
색깔 없는 습기 번

소리없이 미소만 땀물고
멀리 떠나가는 시간엔
잊혀진 회색 꿈들이 묻어 있다

이슬이 흘러 내린 작은 길에
잃어버린 미래를 적다 보면

부는 바람도 날 비껴 떠나간다

(감상노트)

시인의 그리움은 고독한 청신(淸新)에의 아름다움으로 빛난다. 고독의 형상화,미감이다. 미적 현상을 통하여 자연과 사람 사이에 교신하는 서정화 된 사실(詩心)의 꽃을 피우고 있다. 강변에 봄바람 나가는 꽃 한 송이 이름을 물어 보면 어떨까.

윤 부 현

- 시인, 흥익대 졸업
- 《동서문학상》 수상
- 《문단》에 오름
- 한국문인협회 회원, 의정부에 거주

안 익 수(시인)

농축산업분야 예산 확대 지원 요구

2008년 농림사업 신청관련 포천시 농정심의회

포천시는 2008년 농림사업과 관련하여 포천시 농정심의회 분야 사업 설계를 위한 농정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2008년 농림사업을 위하여 공공사업 22개분야 253억5천만원과 자율사업 16개분야 275억1천만원 등 총 29개분야 528억6천만원의 예산을 신청하기로 의결했다.

세부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축산업경쟁력제고와 농업인 삶의 질향상, 직접지불금등 소득보전 등 22개분야 385억여원을, 포천시 면적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업의 경쟁력과 숲가꾸기 사업 등에 12개분야 16억여원을 그리고 농로포장 및 경지정리, 수리시설 개선 등 농업기반조성 4개분야에 126억여원을 신청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농정심의회에 앞서 퇴직

및 농업인 단체장 변동에 따른 심의위원 5명에 대한 위촉식을 갖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농업인 단체장들은 어려워지는 농업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시에서 포천시 농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농축산업분야에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추천! 이야기 한마당



이보윤
본지 지주위원

조화로운 인간 관계란 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면 상대는 문을 열지 않는다. 문을 열기는 커녕 경계하는 마음이 된다. 주는 마음은 열린 마음이다. 내 것을 고집하지 않고 남의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의 마음을 받아 주는 것. 그것이 열린 마음이다. 무엇인가를 애써 주려고 하지 않아도 열린 마음이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냥 열린 마음으로 있어라. 가만히 있어도 열린 마음이면 그건 주는 마음이다. 나를 낮추는 것은 열린 마음의 시작이다. 나를 낮추고 또 낮추어 평지와 같은 마음이 되면 거기엔 더 이상 울타리가 없다. 벽도 없고 담장도 없다. 넓디 넓

낮추면 비로소 높아지는 진실

어 들관엔 수많은 꽃들이 다투어 피고 못 짐승들이 와서 머물고 머물다가는 떠난다. 그러나 거기엔 아무런 시비도 없다. 갈등도 없다. 장애도 없다. 거칠 것이 없다. 때문이다. 고로 주는 마음은 열린 마음이다. 열린 마음은 자유로운 마음이다. 울타리가 좁으면 들어 설 자리도 좁다. 많이 쌓고 싶으면 울타리를 넓게 쳐라. 더 많이 쌓고 싶으면 아예 울타리를 허물어라. 넓은 들관엔 아무런 많은 양을 쌓아 놓아도 여전히 빈 자리가 남는다. 열린 마음은 강하다. 아무것도 지킬 게 없으니 누구와도 맞설 일이 없다. 맞서지 않으니 누구도 대적하려 하지 않는다. 그 마음은 곧 허공과 같은 진대 누가 감히 꺾으려 들겠는가.

높이 오를수록 낮아져야 한다. 많이 가질수록 가난해져야 한다. 목에 힘을 빼고 어깨를 힘을 빼라. 나를 낮추고 마음을 열어라. 진정 강해지려면,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인이 되려면, 마음을 열고 끝없이 자신을 낮추어라.

저 광활한 들관이 어떤 것과도 자라다름을 하지 않듯이 열린 마음에는 일체의 시비가 끼어들지 않는다. 그리되면 모두가 나와 더불어 살고 아낌없이 나누기를 즐겨 할 것이다. 거기에 자유인의 길이 있다. 세상에 제 아무리 높은 것이라도 세우지 않은 것과 높이를 다룰 수는 없다. 그래서 낮은 것이 높은 것이고 열린 마음이 강하다는 것이다.

손은 두 사람을 묶을 수도 있지만 서로를 밀어 낼 수도 있다. 손가락은 두 사람을 연결시키기도 하지만 접으면 주먹으로 변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어색하게 두 손을 내린채로 서서 서로를 붙잡지 못하고 있다. 지혜와 어려움없이 모두 손에 달려있다. 그런데 그 손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다. 준비되지 못한 내마음을 준비되지 못한 어리석은 내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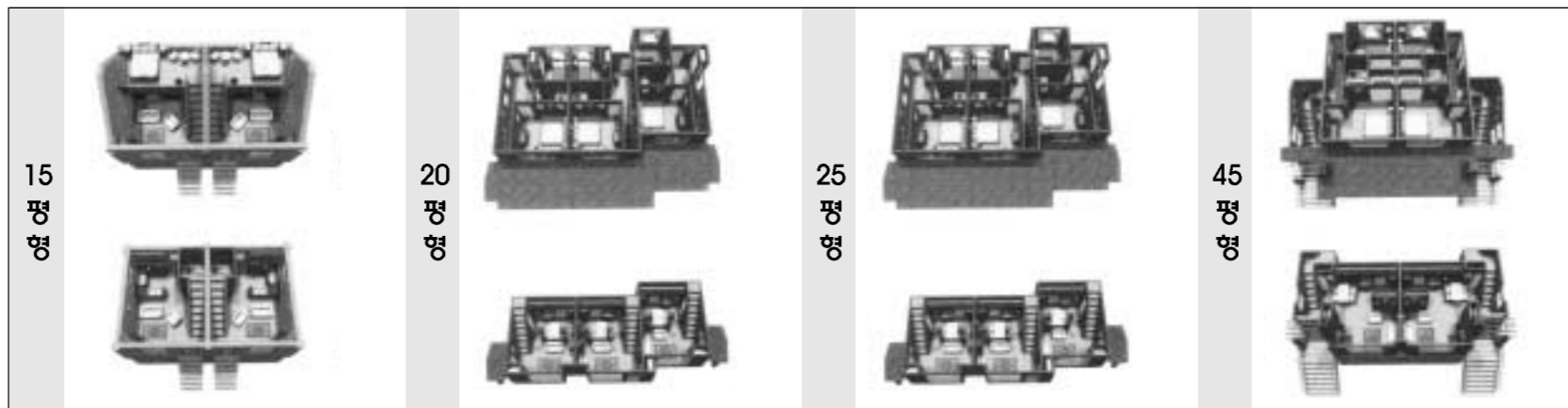
남에게 손가락질 할 때마다 세계의 손가락은 항상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 좋은 글 중에서 -
(문의 011-342-5834)

원목이 주는 편안함과 멋스러움이 가족의 마음까지 부드럽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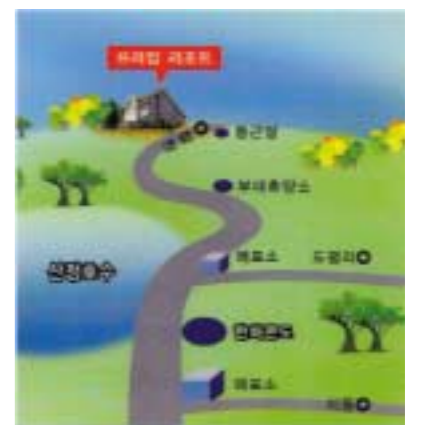
최고급 시설을 자랑하기보다 작은 것 하나까지 배려하는 세심함. 한채 한채가 그림처럼 아름다운 프라임 리조트는 공간배치에서 인테리어 자재 선정,

각종 시스템 설치에 이르기까지 당신과 당신 가족의 건강과 안전, 품격을 담았습니다.



■분양금액(등기제)					■리조트 시설		
분양평수	서비스면적	총평수	대지지분/평	분양금액(천원)	부대시설	내부시설	
15평형	5평(원목데크제공)	20평	52.11평	146,700	•골프연습장	•수영장	•전평형 스투덴산 IKEA 실내가구 제공
20평형	5평(원목데크제공)	25평	69.48평	195,600	•비베뷰장	•점자	•홈시어터(45평)
25평형	5평(원목데크제공)	30평	86.84평	244,500	•산림욕장	•다목적 홀	•가스오븐레인지(45평)
45평형	8평(원목데크제공)	53평	156.32평	440,000	•야외공연장	•카페테리아	•월풀냉장고(25평이상)
							•비데(45평)
							•런닝머신(45평)

찾아오시는 길



경기도 포천시 산정호수
프라임리조트

시행사 : **목가주택건설(주)**

설계·시공관리 : **(캐나다)**

MARANATHA
ARCHITECT & ASSOCIATES

문의전화 : **031)531-7988**

www.primeresort.co.kr